

곡성 옥과중, 메타스쿨 실시간서비스 활용 학교 비전 선포

온·오프라인 상에 있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진행 학교 교육 설명회·학부모 총회·학교 비전 선포 성료

곡성 옥과중학교는 지난 29일 온오프라인 상에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메타스쿨 실시간 서비스를 활용하여 학교 비전을 선포했다. 옥과중학교가 메타스쿨을 통해 교육활동을 공개, 공유하는 방식은 지난 3월 16일 성황리에 마친 '2022 학교교육 설명회'와 '학부모 총회'와 같은 방식으로서, 2022학년도 옥과중학교의 교육활동 운영 방식이 될 것으로 주의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옥과중학교가 지난 전라남도교육청이 2월 개통된 교육플랫폼 메타스쿨을 학교와 마을에 빠르게 보급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한 대책에서만이 아니다.

2022학년도 옥과중학교 교육과정은 지역

을 교육내용으로 담고, 교육방법은 언제 어느 때라도, 학교의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고, 연결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교직원들의 시대 인식, 대응 방법에 대한 합의, 그리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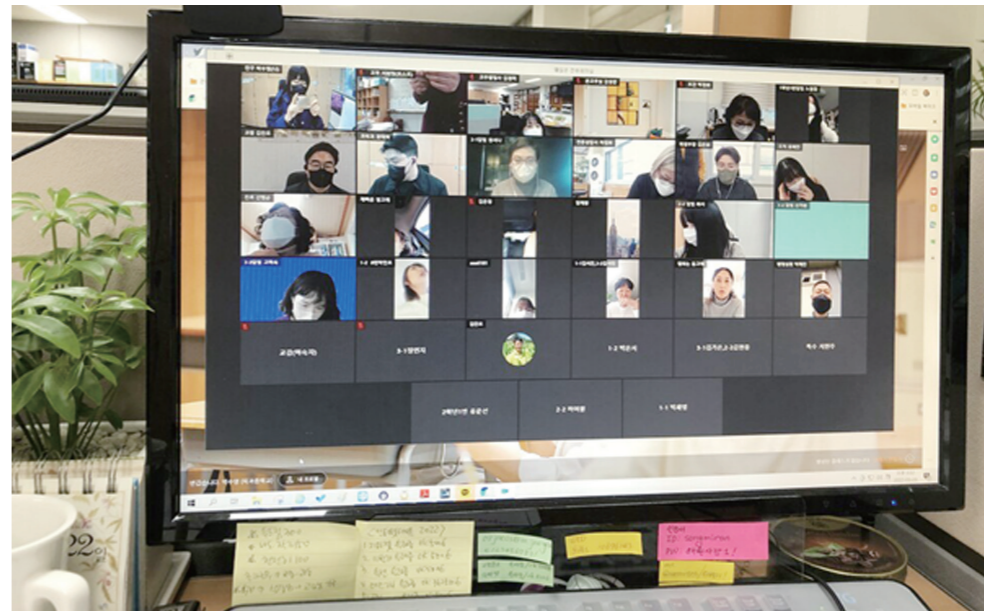
사실 옥과중학교의 메타스쿨을 통한 실시간 교육활동 공개는 '수업'만이 아니라, 학기 초 학급·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 자치회 리더십 과정',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했던 '회복적 생활교육', 21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된 '학급세우기'와 같은 캠프에서부터 '2022 학교교육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교육 주제별 회의', '학교교육설명회', '학부모 총회'등을 학교·가정·마을과 함께 공

유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실시간 공개수업에 참여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송00씨는 "아이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 속상하였는데 격리된 상태에서도 교실에 있는 아이들과 똑같이 학습하고 캠프도 참여하는 것을 보니 우리 아이의 수업 결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2022 학교교육 설명회와 학부모 총회에 참여한 학교운영위원 김00씨는 "학교에 가지 않고도 학교의 교육활동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회의에도 참여하여 의사를 표현하니 4차 혁명시대를 살아가는 기분이 든다"며 흐뭇해 했다.

김진모 교장은 "2022학년도 옥과중학교 중점 교육을 결정할 때 교육 주제별로 모든 구성원의 공개 속의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옥과중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은 메타스쿨의 실시간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에게 공유하고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함께 실천해 갈 것이다"면서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



들이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회에는 학급을 기초로 한 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학부모회는 리더십 역량 강화, 일반 학부모들에게는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다수

의 학부모가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운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전남교육청, 목포사범대 예비교사와 공감토크

사범대 학생 등 80여 명 참석,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대화

전라남도교육청이 29일 목포대학교 정삼목 대학의실에서 '목포대 사범대 예비교사들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목포대학교 사범대학이 코로나 19 이후의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예비교사들에게 전남교육청 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목포대 사범대 학생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대화했다.

목포대 사범대에 재학중인 20대 예비교사들은 전남교육청의 교사인용 계획부터 미래의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했고, 장 교육감은 현장 교사로서 살아온 경험과 교육철학, 전남교육 방향을 담담하게 답변했다. 또한, 전남지역 작은학교의 장점 및

단점, 교사 총원 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예비교사들은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결손과 학령인구 감소, 대입 정시 확대 및 수시 축소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며 봉사 활동 멘토링 참여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목포대 사범대 한 학생은 "전남지역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공감토크를 통해 전남교육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며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고, 이후에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순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장 경청올레 시작



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9일 순천중앙초와 상사초를 시작으로 '2022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장 경청올레'를 시작했다.

지난 1일 자로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한 순

소통하는 경청올레 통한 현장중심 교육지원 강화

천중앙초와 상사초를 경청올레 첫 날 방문한 이용덕 교육장과 담당 장학사, 팀장은 학교현황과 자율선택사업, 특색교육 및 주요 사업, 예산지출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현안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시급한 학교 현안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용덕 교육장은 "찾아가는 경청올레를 통

해 학교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듣고, 직접 보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현장중심 교육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덕 교육장 부임 이후 학교현장을 직접 찾아가 건의 사항과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온 순천교육지원청은 2021학년도에 이어 2022학년도에도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안사업을 협의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기자

담양교육청, 청죽골 학부모 연합회 출범

각 학교 학부모 임원들 참석

담양교육지원청은 29일 관내 유·초·중·고 학부모 임원진들이 참석 해 2022년 청죽골 학부모 연합회가 출범했다고 했다.

'내 아이! 우리 아이! 모두의 아이! 공감하기' 슬로건 아래 80명의 각 학교 학부모 임원들이 참석하여 2022년 청죽골 학부모회의의 학교참여활성화를 위한 뜨거운 관심과 호응으로 청죽골 학부모연합회 출범과 한재중 남명숙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 3명, 총무 3명의 임원진

을 선출하였다.

이번 행사는 담양 월산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월산물구십리 단체의 사물놀이로 힘찬 문을 열었으며, 담양교육지원청은 올해 다문화를 품은 학부모회 운영, 일명 다-품 청죽골 학부모회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다문화 학부모와 한국 학부모가 자매(姉妹) 맺기를 통해 학교행사 함께 참여하기, 가정통신문 함께 읽기 등 다문화 학부모와 한국 학부모가 대면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소통하며 장날 함께 가기, 학생 진로체험처 함께 둘러보기 등



학부모들이 자녀 기르기에 함께 하고자 한다.

또한, 1년 동안 7회기의 학부모 참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첫 행사로 자녀와 소통하기, 자녀와 대화법을 주제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1년 동안 운영한 결과를 11월 중 마을학교와 연계하여 청죽골 나눔의 날 체험부스를 송강고등학교 운동장에서 2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행사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